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호 [루게 제22971호] 주제 99 (2010)년 1월 19일 (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 조선인민군 제 3 2 4 대 연합부대에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 3 2 4 대 연합부대에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예술선전대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정력적인 선군 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인민군 대장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경희동지가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예술선전대원들은 대화시 《위대한 혁명일과》, 녀성독창 《아버지장군님 더 잘 모시리》, 녀성 5중창 《변이 나는 내 나라》, 제담 《병사때를 생각하자》, 노래편곡 《단숨에》, 《돌파하라 최첨단을》, 시와 이야기 《사회주의 불빛과 초병의 눈빛》, 북과 노래 《총동원가》, 합창 《오늘의

7편대 되리라》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혁명적근인정신이 나래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아버지장군님의 손길아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끝까지 완수하고야말 인민군군인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출연자들은 지난 기간 초소와 훈련장마다에서 전투적 화선선전, 화선선동으로 군인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불러일

으키던 그 열정, 그 기백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우리 당의 항일유격대식예술선전방식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였으며 사상선전의 제일선에 선 영웅적인 초병으로서의 전투적사명을 원만히 수행하고있는 군인예술인들의 위력을 두텁게 과시하였다.

심장의 피를 끓게 하는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술선전대원들이 우리 군대의 무한대량 정신력과 고상한 풍모를 그대로 생동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사상

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술선전대원들이 혁명군대의 예술인답게 병사들과 교락을 같이하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으로 새해의 충진군길에 펼쳐나신 군인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판, 멸적의 투지와 용맹을 안겨주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술선전은 군인교양의 위력한 수단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예술선전대원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전체 예술선전대원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지휘하시며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게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 도 친히 자기들의 공연을 보아 주시고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대고조 시대의 요구에 맞게 예술선전활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군인들의 혁명교양에 적극 이바지할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부

강성대국승리의 결승주자로 따라 힘차게 앞으로

## 혁명적대고조의 선봉에서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떠밀어주자

### 4대선행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종업원결기모임 진행

【평양 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올해공동사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김책철련합기업소, 황해철련합기업소 종업원결기모임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로 구성된 4대선행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종업원결기모임이 진행되었다.

결기모임에서는 김책철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기록되고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책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에게 지어주신 새해전투의 불길과 공동사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은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 당장전 65년을 김일성민족의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고조로 빛내기 위한 장엄한 대진군으로 전체 로동계급을 고무추동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4대선행부문이 대고조의 전진속도를 최대 높여 인민경제의 기관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밑뿌리가 됨으로써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떠밀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4대선행부문의 로동계급은 경제강국건설의 최후병, 개척자로서의 높은 책임

감을 지니고 대고조의 앞장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야 합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황해철련합기업소 종업원결기모임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령적사실에 안겨주시는 나란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철강제강산투쟁에서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개와 본래를 남김없이 과시할것을 결의하였다.

그들은 성장로동계급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따라배워 주체철생산체계를 완비하며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원료, 자재보장을 앞세워 당이 제시한 선철, 강철, 압연강제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진력을 최대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일군들이 총공기, 가속기가 되어 대중을 새로운 전진속도장으로 힘있게 떠밀어 주는것과 함께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여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재령, 은률광산 종업원결기모임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가 벌어지고있는 박찬 현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전열에

선 전체 광부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재물 및 운반설비들에 대한 관리와 정비보수를 정상화하고 바르치리를 확고히 앞세우며 기술개조, 설비개조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정량실수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매장량이 풍부한 광구들을 전망성있게 꾸러나감으로써 올해 최동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할것이라고 말했다.

평양, 북강화발전련합기업소 종업원결기모임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경공업공장들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내주고 화력발전소들의 만부하를 보장할데 대한 김책로동계급의 호소와 공동사실의 과업을 받아안은 전력생산자들의 심장은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하는데 기여할 열의로 세차게 고무되고있다고 말했다.

강계, 수봉발전소 종업원결기모임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공장, 기업소들의 전례수요를 원만히 보장할것을 다짐하였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나라의 생명선을 지켜선 궁지와 영예를 간직하고 전력생산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발전설비들의 현대화, 과학화를 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물조절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인제구조물에 대한 보수정검을 정상화하는 한편 발전기들의 리용률을 최대 높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평안북도, 함경남도송배전부 종업원결기모임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전력계통운용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그 안정성을 높이고 전력의 대중소비를 극력 줄이며 교차생산조직과 전기절약사업을 짜고들것이라고 말했다.

구장지리관발전련합기업소 종업원결기모임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재물장비들을 계속 강화하면서 최신기술에 기초한 갱진설을 다그치며 기술개조를 적극 추진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해나감으로써 화력발전소들과 화학공정들을 비롯한 중요대사설에 필요한 석탄을 무조건 보장할데 대하여 강조했다.

2, 8직동청년관방, 문천, 사리원관방 종업원결기모임들에서도 결정을 실행시켜 재물조건이 좋은 탄발들을 충분히 마련하며 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와 관리를 간지하게 하여 만기등을 보장하는것을 비롯하여 뜻깊은 올해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방도들을 제기되었다.

평양, 청진기관차대 종업원결기모임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우리 당에 대한 충정의 열도를 최대 분출시

켜 두들기 캐두우에 중증의 기적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수송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 올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은 결기모임에서 세계의 선진수준을 따라달리겠다는 비상을 각오와 애국의 열정으로 생산공정의 기술개선을 다그쳐 새로운 기관차와 화차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이미 마련해놓은 생산장비들과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차량부속품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할것을 결의하였다.

평양역, 사리원청년역 종업원결기모임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운전취급과 려객안내, 화물영업봉사를 개선하여 인민들의 편의를 더 잘 보장해주고 화차머무름시간을 훨씬 줄일데 대하여 말했다.

결기모임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대고조사상과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총공세에서 모두가 자랑찬 성과를 거두도록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기상을 민방에 떨치며 10월의 경속공방에 멋뻐이, 궁지대들이 들어설데 대하여 강조했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경공업혁명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각 지방 조종기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새해와 함께 인민소비품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전당적, 전국각적인 힘을 집중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 대대적으로 늘일데 대한 새해강령적과업을 받들고 첫 전투를 맞으며 평, 중앙기관, 무력기관 당조직들과 각 도, 시, 군당위원회 등에서 경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을 찾아가 그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예술단체, 예술교육기관 당,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도 예술인들과 교직원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예술활동을 힘있게 벌렸다.

성, 중앙기관과 각 도, 시, 군당의 책임일군들은 선동선열과 기사들은 로력혁신자들의 사정을 짚어 주면서 그들을 보다 큰 위훈에로 고무추동하였다.

평양방직기계공장을 찾은 생

산자대중과 무릎을 마주하고 올해공동사실의 기본정신과 과업들을 해설해주면서 당장전 65년을 맞는 올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를 가슴깊이 새겨주었다.

강계기초식공장과 강계포도공장을 찾은 공장도당원회와 일군들은 로동자들과 같이 들어가 공장에 깃들여 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주면서 그들을 새해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대동강식공장, 락양역에 군인수지이용공장을 찾은 경공업부문의 책임일군들도 로동자들의 가슴마다에 불을 다는 화선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보다 큰 승리로 고무추동하기 위한 화선적경제선동활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평양방직공장을 찾은 국가영화위원회와 문화성, 만수대예술단과 피바다극단의 일군들과 예술인들은 생산자대중을 창조와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선동선열과 함께 다채로운 예술활동을 힘있게 벌렸다.

이날 조선중앙사건선전사 일군들과 기사들은 로력혁신자들의 사정을 짚어 주면서 그들을 보다 큰 위훈에로 고무추동하였다.

평양방직기계공장을 찾은 김원명평화평양음악대학 일

군들과 교직원들은 침단들과의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정밀기공작업반현장에서 기백있는 예술선동활동을 벌려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가슴마다에 새로운 창조와 위훈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무력기공의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새해 첫 전투에 떨치나선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성심성의로 지원하였다.

평양방직공장, 평양방직기계공장, 평양일용공장을 찾은 인민군부대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성의껏 마련한 지원품을 넘겨주고 혁명적근인정신이 맥박치는 예술선동활동을 벌리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올해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것을 당부하였다.

경공업부문에 대한 전당적, 전국각적인 관심과 지원 열의, 그에 화답하는 경공업공장, 기업소일군들과 생산자대중의 혁명적투쟁기풍이 비상히 높아진 속에서 진행된 새해 첫 전투는 올해 기어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투쟁목표가 천만민들의 일상생활에 반영되리라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림 현 숙

## 거름실어내기에 모든 힘을 집중

각 지방 농촌들에서  
보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새해공동사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함경남도 농촌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사합같이 떨쳐나섰다. 특히 은천군의 농업근로자들은 거름실어내기에 로력과 운반수단을 총집중하여 새해 첫 거름실어내기과제를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은률군, 재령군, 안악군의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거름더미이자 쌀더미

라고 하면서 탐뭍려 생산한 질 좋은 거름을 포진들마다에 들뜬들뜬 실어냈다. 일군들의 치밀한 조직사업과 농업근로자들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도에서는 새해 첫 보름동안에 백수집만의 질 좋은 거름을 포진에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안남도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새해 첫 전투기간에 많은 거름을 실어냈다. 평원군, 숙천군, 문덕군을 비롯한 도안의 군들에서는

첫 전투계획을 면민히 세우고 거름실어내기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3배의 거름을 실어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평안북도에서도 새해 첫 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해나갔다. 특히 파산군인의 농업근로자들은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기개를 떨치며 힘찬 전투를 벌려 수만의 질 좋은 거름을 포진에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윤천군의 농업근로자들은 첫 하루동안에 1만



공동사실을 높이 받들고 천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 신의주방직공장에서 - 본사기자 장정일 찍음







# 백두의 기상과 슬기를 타고나신 천출위인

새해를 맞이한 거제의 가슴속에 크나큰 격정과 환희의 파도가 세차게 설레인다.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어머니로 높이 모신 한없는 영광이 강산에 차려진다.

절세의 위인을 모신 크나큰 영광을 안고사는 남녘겨레의 열화같은 흥모와 다함없는 청송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만천하에 자랑하사, 천하무적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통일외의 구성으로 모신 민족의 영광과 긍지를 소리높이 자랑하사.」

「김정일명도자님은 문무가 뛰어나시고 승고한 덕망과 인품을 지니신 분이시다. 김정일명도자님과 같이 위인의 천품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백승의 기상과 슬기로 민족의 운명을 수호해주시는분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천하무적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어 조국통일은 문제였다. 우리모두 통일을 위해 혼신의 정력을 다 바치자.」

서울과 부산, 남해가 저 멀리 제주도에서 이르러까지 남녘 땅도처에서, 「민심의 광장」을 비롯한 남녘겨레의 뜨거운 상징들이 합쳐지는 그 이상곳에서나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흥모와 청송의 마음이 끝없이 분출되고있다.

하디면 남녘겨레의 가슴속에 서 울려나오는 위인칭송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소리들은 과연 무엇으로 하여 그러도 뜨겁고 절절한것인가.

「김정일명수님은 하늘에 지 솟은 조종의 성산에서 백두산의 대장군과 나장군을 광천으로 탄생하시고 성장하신 천출명장이시다. 그 어떤 광풍에도 드물지 않는 무비의 담력, 민중을 하늘처럼 받드는 숭고한 정신, 천하를 한몸에 안는 넓은 품, 백두산의 모든 것을 닮은 평정은 바로 김정일명장군님이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백두의 기상과 슬기를 타고나신 천출위인으로 호모하고 따르는 남녘겨레의 절절한 청송의 마음을 담아 《세 역사연구회》의 한 회원이 러친 격정의 목소리이다.

은 인류가 분출의 위인이시라고 높이 칭송해주시는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최고수위에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행운이고 행복이며 최상의 영광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력사에 류례없는 엄격한 시련과 단판을 과감히 뚫고헤치며 민족의 존엄을 높이 뚫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불굴의 위력과 통일강국의 찬란한 메아리에 대해 어찌 생각할수 있나.

서울에서 사는 퇴역장교들속에서는 이런 열띤 목소리로 울려나온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고수되고 민족의 존엄이 온 누리에 파시되고있는것은 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제일의 국사로 내세우셨기때문이다. 우리모두 세계의 모든 선군정치로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어 주시는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 감사를 드려라.》

《들어켜보면 민족의 운명이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그 나날에 만약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미국의 침략기도를 분쇄해버리지 않았었다면 우리 민족은 전쟁의 참화를 당했었을것이다. 하지만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계시는 한 어림도 없다. 그는 민족수호의 평정이다.》

그렇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다.

천하를 굽어보는 위대한 선군명장의 대내외 기상, 천만대적을 휘둘러버리시는 담력과 배짱, 고결한 인격과 품도, 그 모든것이 이 세상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명장중의 명장, 천하제일위인의 모습으로 안겨온다. 그처럼 위대한 백두명장의 손길아래 존엄한 시련을 막치고 강대국에게 대내하는 선군조선의 기상은 곧 백두의 폭풍기상이며 압살의 광풍을 부시는 선군총애의 위력은 무적 필승의 위력이다. 전쟁경애하는 장군님은 백두의

기상과 담력, 백두의 의지와 신념으로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민족의 창창한 메아리를 펼쳐주시는 위대한 백두의 평정이다.

이렇듯 걸출한 위인을 모시어 민족의 존엄이 드높고 끝없이 밝은 민족의 메아리가 펼쳐져있기에 남녘겨레의 환희와 격정 그리도 열렬한것이라.

현대명인사를 연구하는 남조선의 한 인사는 출판물에 낸 글에서 이렇게 썼다.

《세계는 김정일의 포위와 협공속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쥐고서 총성 한번 울리지 않으면서 상대를 제압하신 김정일명수님과 같은 명장을 알지 못했다. 오늘날 겨레와 사회이런런전승으로 민족과 사외의 충절을 지키신 김정일명수님을 천출명장으로 격찬하는 당인지사라 하였다.》

사상의 거장, 담력의 강장, 전략의 명장 이신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민족의 수호자로 계시어 우리 겨레는 영원히 3대장군복을 받은 영광스러운 민족, 행운의 민족으로 반영할것이다.

강철의 명장이신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민족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경애하는 이 말에서 느껴지는 김정일장군님을 백두의 천출명장으로 우리더러

그이께 자기들의 운명도 미래도 맡기고 사는 남녘겨레의 뜨거운 마음을 엿볼수 있다. 이것은 비단 그만이 아닌 남녘의 각계각층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뿌려내린 신념이며 의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의 영원한 승리와 선군정치가 안아오는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 통일강국의 위창한 미래를 확신하는것은 바로 오늘 막을수도 거세할수도 없는 남녘의 민심이다.

백두산이 낳은 천출위인이시며 회세의 정치가이시고 민족의 어머니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긍지와 자랑을 담아 남녘겨레들은 이렇게 목청껏 심장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있는것은 참으로 대행운이다. 세계의 모든 선군정치로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백승을 펼치시는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당할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 김정일장군님 만세!

남녘겨레의 절절한 흥모, 온 겨레의 다함없는 청송속에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조선 민족의 2010년은 더욱 희망차고 영광받치는 승리의 해로 빛날것이다.

#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전쟁소동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대결전쟁행동이 갈수록 무분별해지고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남조선군 26사단은 경기도 양주시, 동두천시일대에서 5일간에 걸쳐 도발적인 야기동훈편을 벌려놓았다. 한편 남조선군부는 《국방정보본부》신하에 《싸이버사령부》라는것을 내오기로 하였다. 이 기구는 《국방싸이버지휘센터》를 중심으로 《유사시》 싸이버공간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군사작전인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남조선 《국방부》 장관이 《선전기차회전》이라는데서 판에 박힌 그 무슨 《북의 도발가능성》을 운운하며 《철저한 대비》에 대해 떠들어댄것도 스톱지남수 없다.

오늘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도 불구하고 철에한 대결국면이 지속되고있다. 그것은 남조선에서 동족을 반대하는 위험한 군사적도발소동에 계속 열을 올리는 군부호전세력 때문인것이다. 대결상태에 못박혀있는 북남관계의 비정상적인 사태는 대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미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히었으며 그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하지만 동족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대결, 전쟁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고있는 남조선군부세력의 망동은 실로 호전적이다. 그들은 그 누구의 의지도 않는 《침투가능성》을 구실로 새해 첫날부터 전선동부일대의 야전군부대를 내몰아 우리의 면전에서 위험한 불장난소동을 감행하였다. 그것으로 도성차지 않아 이번에는 야기동훈편이러

는것을 벌이며 또다시 북침의 화약내를 풍기었다.

그 목적은 명백하다. 어떻게 하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 북남관계를 반복과 질시, 대결과 충돌에 더욱 몰아가며 북침전쟁도발준비를 다그치자는것이다.

남조선군부가 《싸이버사령부》라는것을 내오기로 한것도 대결과 전쟁에 환장한자들의 위험한 책동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유지프리 가터인》을 비롯한 북침합동군사연습기간에 수많은 컴퓨터전문가들을 인입시켜 우리를 겨냥한 《싸이버공세》훈련을 벌려왔다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싸이버사령부》까지 내오기로 한것은 조선반도 《유사시》 고도기술수단에 의거하여 우리에게 타격을 가해보려는 호전광들의 위험한 《싸이버전쟁》음모가 완전히 로폭화, 현실화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결국 남조선군부는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총포성으로 깨버리고 대결과 북침전쟁의 길로 계속 출몰을치겠다는것을 공공연히 선언하였다.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헤집버리는 전쟁수나비들이 분명하다.

우리는 북남관계를 귀중히 여기기에 그것을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발악하는 남조선호전광들의 대결전쟁책동을 추호도 용납치 않겠다.

남조선호전광들이 계속 화약내를 풍기며 군사적도발에 미쳐날뛰는것은 북남관계개선의 악랄한 책방군, 전쟁광신자로서의 더러운 정체만을 폭로해준것이다.

6.15통일시대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대결과 전쟁에 미쳐날뛰는 대국역적들에게는 력사의 준엄한 심판밖에 차레질것이 없다.

최철순

# 조국의 부강번영과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자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담화 발표

최근북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장이 5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따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자》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주체의 년대기우에 특기할 사변과 위훈으로 아로 새겨진 뜻깊은 2010년을 맞이하는데 언급하였다.

격동속에서 저물어간 지난해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장제 인민이 일심단결하여 경제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 통선번영의 건설기를 열어나오는 자랑한 해였다고 담화는 지적하였다.

담화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우리 혁명당 강대국건설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

을 웅대한 구상과 작전을 펼쳐서 조국과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평도하시었다고 격찬하였다.

조선인민들이 지난해 역사의 준엄한 폭풍을 과감히 헤치며 사회주의사회건설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한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담화는 강조하였다.

담화는 조선인민들의 투쟁에 고무된 재중조선인민들이 애국애국의 기치아래 평민들 동포들을 묶어세우고 총련합회를 주체적과 민족성이 강한 조직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왔다고 밝혔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지난해 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전체 총련합회인민들과 재

중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이 이시야말로 조국과 민족의 명성이자 장군님의 평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 해외동포들의 미려가 약속하신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었다고 담화는 강조하였다.

담화는 새해공동사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평화를 위한 조국통일의 힘찬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어 평범한 재중조선인민들을 총련합회두리에 굳게 묶어두고 그들을 통일애국사업에 힘있게 불러일으켜나갈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전체 재중조선인민들이 반미반진, 평화수호투쟁의 불길을 새차게 지펴올려 남조선침보수집권세력의 반공화국,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통일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라고 담화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애국위업의 한길에서

조국방문나날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재일조선인운동의 명맥을 어떻게 이어나가는가 하는것은 새 세대 동포청년들을 어떻게 키워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최근 재일조선청년동맹(조청) 산하 각급 조직들에서 애국위업의 전위대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기 위한 투쟁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그들이 이 불같은 호소는 조청원들의 심장을 애국의 열정으로 끓여버리게 하였다.

이 파장에 많은 조직자들이 애국적에 걸쳐 대표단을 무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사회주의조국을 방공하였다.

조국방문의 나날 그들은 이른 곳마다 높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시고 불패의 선군정치로 위력떨쳐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요한 현실을 온몸으로 느낀수 있었다. 비약의 나래를 펴고 변혁의 새 시대를 창조해가는 어머니조국의 벅찬 숨결은 그들의 가슴속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위대한 조국을 받들어 애국위업에 힘차게 떨쳐나설 의지 그 무어의 가슴마다에 더욱 굳어졌다. 사회주의건설의 앞장에서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조

다진 맹세 지켜

국의 미더운 청년들처럼 애국위업의 한길에서 청춘을 빛내며 여광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진 그들은 그 맹세를 지켜 애국운동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동포사회의 밝은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 힘차게 떨쳐나서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조국을 애국의 열정과 광만, 희열로 가득찬 조직으로 꾸리자.

그들이 이 불같은 호소는 조청원들의 심장을 애국의 열정으로 끓여버리게 하였다.

이 파장에 많은 조직자들이 애국적에 걸쳐 대표단을 무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사회주의조국을 방공하였다.

조국방문의 나날 그들은 이른 곳마다 높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시고 불패의 선군정치로 위력떨쳐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요한 현실을 온몸으로 느낀수 있었다. 비약의 나래를 펴고 변혁의 새 시대를 창조해가는 어머니조국의 벅찬 숨결은 그들의 가슴속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위대한 조국을 받들어 애국위업에 힘차게 떨쳐나설 의지 그 무어의 가슴마다에 더욱 굳어졌다. 사회주의건설의 앞장에서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조

심청년들로 보강하고 그 역할을 높여 지부를 힘있게 생기발랄한 조직으로 꾸린 조청 고전 허니노미야지부와 지난 시기 활동이 미약하였던 반들을 새 모습으로 다시 꾸리고 반들사이의 구성의 방법으로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는 도교도 데이포지부, 판하지역의 동포청년들에 대한 반공화사업의 정상화, 잡지발간, 각종 소조활동으로 언제나 흥성있는 도교도 이따미야지부를 비롯하여 자랑할만한 단위들이 적지 않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위창한 앞날의 주인공이라는 자각을 안고 힘차게 나아가는 미더운 조청원들과 조청원들에 의해 동포사회는 더욱 부름부름 끊어지고있다.

미래에 대한 사명감을 안고

일본 이시카와현에는 이곳의 조청 현분부에서 일본학교에 다니는 동포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파외학교가 있다.

여기서 수강생들은 우리 말과 글, 노래를 열심히 배우며 즐거운 나날을 보낸다. 학교가 개교된 이래 해마다 수강생수가 늘어나고있다. 파외학교의 운영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과 조청조직자의 편지도 깊어지게 하여 동포민족권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로 가져오고있다.

이 파장에 《동포로찾기운동》에서 민족교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달은 현분부원들은 파외학교의 운영에 보다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조청원들도 파외학교운영사업에 자기들의 지혜와 열정을

기워 꼭 조국의 국가대표팀선수로 자라나겠다고, 그래서 월드컵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무대들에서 조국의 영예, 민족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쳐놓겠다고, 이것이 자기들의 희망이라고 힘찬 목소리로 말하였다.

단순히 피아수선들의 희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뜨겁고 열렬한 그들의 이 결의를 들으며 동포들은 애국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있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부풀어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미래에 대한 사명감을 안고

일본 이시카와현에는 이곳의 조청 현분부에서 일본학교에 다니는 동포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파외학교가 있다.

여기서 수강생들은 우리 말과 글, 노래를 열심히 배우며 즐거운 나날을 보낸다. 학교가 개교된 이래 해마다 수강생수가 늘어나고있다. 파외학교의 운영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과 조청조직자의 편지도 깊어지게 하여 동포민족권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로 가져오고있다.

이 파장에 《동포로찾기운동》에서 민족교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달은 현분부원들은 파외학교의 운영에 보다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조청원들도 파외학교운영사업에 자기들의 지혜와 열정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을 호소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인사들이 13일 선언문을 발표하여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각계각층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선언문은 올해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돌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세계에 의한 불평등의 고통과 대결을 끝장내고 자주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지적하였다.

선언문은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책대시정책에 대한 전진을 가로막으며 방해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당국이 앞으로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정책을 계속 매달린다면 평화통일을 넘길수는 온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선언문은 경고하였다.

전원적투쟁을 요구

남북공동선언실천대가 13일 성명을 발표하여 통일 애국청년에 대한 당국의 탄압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이날 사법당국이 단제성인 김성연에 대한 공판문을 벌려놓고 그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가 실천전대에 가입하여 활동한것을 《리처행위》로 몰아대며 《보안법》에 걸린 탄압하는것은 남북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는 반통일책행위이라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당국이 김성연을 비롯한 구속된 통일운동가들을 전원 석방할것을 성명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공고한 평화체제수립을 주장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람들》을 비롯한 반전정화, 통일운동단체들이 12일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자주통일평화행동》을 가졌다.

단체들은 지금까지 미국대사관앞에서 123차례 걸쳐 매일 진행하여온 반미전대투쟁을 해부터 《자주통일평화행동》으로 명칭을 바꾸어 계속 전개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미국대사관에 보내는 항의문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데 대한 북의 제안을 적극 받아들일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들은 조선반도에서의 전제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체제를 이룩한 지금이 시작에도 미국이 북을 적대시하며 평화를 역행하는 행위를 계속하고있고 그에 편승하여 남조선당국도 핵실험공격을 노린 전쟁연습과 미국과의 무는 《공조체제》강화에 매달리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평화협정체제는 더이상 미룰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서 단체들은 미국이 북에 대한 경제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 속속히 늘어나는 마약범죄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마약범죄가 급속히 늘어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무려 8200여명이 마약범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21% 증가한것으로 된다. 특히 10대, 20대 청소년들속에서 마약범죄가 확대되고있다고 한다.

확대되는 어린이연염병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급성어린이전염병인 수두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있다. 수두환자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사이에 그 수가 2배이상에 이르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하였으며 61명에게 직무정지 처벌을 하고 그들전원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각계는 《최소한의 법적절치마저 무시한 악행》, 《군부특대(정권)들도 엄무를 못 낸 인권유린행위》라고 일침하듯 단죄규탄하였다.

남조선의 법률전문가들도 시국선언발표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것으로서 그에 대한 처벌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딱언하였다. 세계교회연대총연맹사무총장이 남조선당국에 《전교조》에 대한 탄압중지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냈것은 결국 우연치않았다.

《전교조》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탄압소동은 사회의 민주화와 정의를 바라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진보세력들을 말살하려는 파쇼화공세의 한 고리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지금 남조선의 진보적단체들과 각계층인민들이 《전교조》의 활동을 범죄시하면서 이 단체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가혹한 탄압을 하고있는 당국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정당한 활동을 벌리고있는 《전교조》를 탄압말살하려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은 인민들의 더 큰 분노와 항거를 불러일으킬것이다.

본사기자

# 가져지지 않는 울분, 계속되는 투쟁

지난 9일 서울에서는 통선철거민학살사건으로 희생된 사망자에 대한 장례식이 각계의 참가로 《법국민중》으로 진행되었다. 사건발생후 355일째만에야 이루어진 장례식이였다.

한겨울의 맹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성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이 살인마들에 대한 사투지를 울분을 안고 장례식장으로 모여들었다.

《민중해방의 꽃으로 부활하기를》, 《살인건담신상규명》 등의 글발들과 투쟁구호들이 나붙은 장례식장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비통한 분위기가 휩사하였었다. 지난 한해동안 한 번도 검은 상복을 벗은적이 없던 유가족들은 사망하는 형제들의 영구를 부여잡고 열개는 못 보겠다고 오열을 터쳤다. 그 광경은 정병 눈물사건은 불수 없는 처절한것이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도 괴로운 투쟁에 의해 얼마진 희생된 철거민유가족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았다.

하지만 통선철거민학살사건은 이것으로 해결되었기 아니다. 사건해결의 핵심은 학살사건에 대한 신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다. 바로 그것을 위해 희생자유가족들과 관련단체들은 장례식을 진행하기로 한것이다.

이날 장례식참가자들은 한

결같이 무고한 사람들을 무참히 불태워죽이고도 1년이 되도록 그 진상을 가리우고 살상수범들이 활개치며 한 당국에 대한 치초는 울분을 터지였다.

추모연단에 오른 사람들은 통선철거민학살사건은 당국이 《법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함으로써 비롯된것이라고 하면서 오로지 진전적결의 탐욕적리익만을 위한 《세계발정적》의 중지와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처벌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살인적인 《세계발정적》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2의 통선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망루를 세우자.》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참가자들은 《진정한 해결은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투쟁에 의해 얼마진 희생된 철거민유가족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았다.

하지만 통선철거민학살사건은 이것으로 해결되었기 아니다. 사건해결의 핵심은 학살사건에 대한 신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다. 바로 그것을 위해 희생자유가족들과 관련단체들은 장례식을 진행하기로 한것이다.

이날 장례식참가자들은 한

결같이 무고한 사람들을 무참히 불태워죽이고도 1년이 되도록 그 진상을 가리우고 살상수범들이 활개치며 한 당국에 대한 치초는 울분을 터지였다.

추모연단에 오른 사람들은 통선철거민학살사건은 당국이 《법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함으로써 비롯된것이라고 하면서 오로지 진전적결의 탐욕적리익만을 위한 《세계발정적》의 중지와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처벌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살인적인 《세계발정적》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2의 통선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망루를 세우자.》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참가자들은 《진정한 해결은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투쟁에 의해 얼마진 희생된 철거민유가족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았다.

하지만 통선철거민학살사건은 이것으로 해결되었기 아니다. 사건해결의 핵심은 학살사건에 대한 신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다. 바로 그것을 위해 희생자유가족들과 관련단체들은 장례식을 진행하기로 한것이다.

이날 장례식참가자들은 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을 호소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인사들이 13일 선언문을 발표하여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각계각층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선언문은 올해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돌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세계에 의한 불평등의 고통과 대결을 끝장내고 자주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지적하였다.

선언문은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책대시정책에 대한 전진을 가로막으며 방해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당국이 앞으로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정책을 계속 매달린다면 평화통일을 넘길수는 온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선언문은 경고하였다.

전원적투쟁을 요구

남북공동선언실천대가 13일 성명을 발표하여 통일 애국청년에 대한 당국의 탄압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이날 사법당국이 단제성인 김성연에 대한 공판문을 벌려놓고 그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가 실천전대에 가입하여 활동한것을 《리처행위》로 몰아대며 《보안법》에 걸린 탄압하는것은 남북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는 반통일책행위이라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당국이 김성연을 비롯한 구속된 통일운동가들을 전원 석방할것을 성명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을 호소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인사들이 13일 선언문을 발표하여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각계각층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선언문은 올해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돌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세계에 의한 불평등의 고통과 대결을 끝장내고 자주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지적하였다.

선언문은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책대시정책에 대한 전진을 가로막으며 방해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당국이 앞으로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정책을 계속 매달린다면 평화통일을 넘길수는 온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선언문은 경고하였다.

전원적투쟁을 요구

남북공동선언실천대가 13일 성명을 발표하여 통일 애국청년에 대한 당국의 탄압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이날 사법당국이 단제성인 김성연에 대한 공판문을 벌려놓고 그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가 실천전대에 가입하여 활동한것을 《리처행위》로 몰아대며 《보안법》에 걸린 탄압하는것은 남북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는 반통일책행위이라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당국이 김성연을 비롯한 구속된 통일운동가들을 전원 석방할것을 성명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지극히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제안

최근 우리 공화국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유 판국들속에서도 성명이 발표되자 《공정적인 신뢰》, 《신속성있는 제안》 등으로 평가하는 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이것은 우리 제안의 합리성과 정당성에 대한 객관적증거로 된다.

이번 제안에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최대한 빨리 실현할 수 있는 로정도가 명확히 그려져 있다. 지난 시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한 과정에서는 조미사이에 핵문제를 중심으로 놓고 회담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회담들은 흔히 공회전하는데 그쳤으며 합의들을 이룩하였다고 해도 결실은 별로 없었다.

문제해결에서 본질이 뒤전에 밀려우고 중점이 바뀔때 중요한 원인이었다. 6자회담의 전과정과 오늘의 복잡한 형편은 조선반도에 평화체제를 우선적으로 수립하지 않고서는 비핵화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조미사이에 적대관계, 교전상태가 지속되고 조선반도에 평화체제가 마련되지 않은 조건에서 어떻게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사실적으로 보아도 자명해져 버렸다.

미국이 남조선에 출한 핵무기들을 전진배치함으로써 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협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로 하여 북과 남의 방대한 무력이 적에게 대치되어있는 조선반도는 세계적으로 핵전쟁발발가능성이 제일 크고 군사적경쟁이 최악의 상태에 서

지속되는 매우 불안정하고 첨예한 열점지역으로 되었다. 미국의 끊임없는 핵공갈속에서 살아오면서 우리 인민은 핵무기없는 조선반도, 핵전쟁위협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동북아시아를 간절히 념원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이 념원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는 아버지수령님의 유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언을 관철하기 위해 우리 공화국정부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다. 1990년대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들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 《조미기본합의문》과 9.19공동성명과 같은 중요한 쌍무적 및 다무적합의들이 채택된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공화국정부가 기울인 적극적인 노력이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하지만 이 모든 합의들은 어느것 하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리행과정에 중도반단되었거나 통제로 뒤집혀졌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웅대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돌이켜보면 이 기간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줄어들어서 아니라 반대로 더 커졌으며 따라서 핵억제력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저해하고 자기 케대로서 탈선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증대시키고 지어 우리의 자주적권리를 침해하면서 국제적적제까지 가해온 미국에

있다. 9.19공동성명이 리행되자면 자주적권과 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긴 9.19공동성명은 6자가 《공약 대 공약》, 《쌍둥이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그리고 호상존중과 평등을 원칙으로 합의하여 다같이 자기들의 의무를 리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미국 등은 공동성명을 채택해놓고는 저들의 의무는 제대로 리행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일방적인 요구만을 강요해왔다.

특히 지난해 4월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국제법적절차를 거쳐 진행한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걸고들여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행동을 저리진입이 하였다. 유엔생원국 같은 국가주권과 자주적권리를 옹호하고 존중해주시어야 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자기의 체면과 공정성과 평등의 원칙을 저버리고 세계적으로 유독 우리 나라의 위성발사만을 문제시하면서 천만부당한 《의정서명》을 채택하는 등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비렬한짓을 하였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최고리익,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에 대응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던 안되었다.

과절과 실패를 거듭한 6자회담과정은 당사자들사이의 신뢰가 없다는 일제 그도 문제가 풀릴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있다.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다시 케대로 올려세우기 위해서는 핵문제에 기본당사자인 조미사이에 신뢰를 조성하는데 선자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결론은 6자회담과정에

해부학적으로 분석총화한데 기초하여 내린것이다.

우리의 제안은 미국을 비롯한 유 판국들이 남들이 되도록 그들의 요구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한 매우 합리적이고 신속성있는 발기이다.

지금 미국 등 나라들은 우리 나라가 회담탁에 나설것을 바라고있다. 쌍무회담이든 다자회담이든 회담이 진행되려면 빈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고 서로 총부리를 겨논 교전상태에서 회담탁에 앉아야 결과물이 나올것은 없다는것은 변하다. 지금까지 진행과 평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떠난 합의들은 빛을 보지 못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한 회담들이 빨리 진행되고 성과를 거둘수 있는 바라는 여러 나라들의 심정도 아랑외로 참작하여 건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그래서 정정정당사국들에 회담합식에 대해서 유독 우리 나라의 위성발사만을 문제시하면서 천만부당한 《의정서명》을 채택하는 등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비렬한짓을 하였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최고리익,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에 대응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던 안되었다.

과절과 실패를 거듭한 6자회담과정은 당사자들사이의 신뢰가 없다는 일제 그도 문제가 풀릴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있다.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다시 케대로 올려세우기 위해서는 핵문제에 기본당사자인 조미사이에 신뢰를 조성하는데 선자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결론은 6자회담과정에

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었다면 핵문제도 생겨나지 않았을것이다.

평화협정체결문제는 9.19공동성명에도 언급되어있는것만큼 실현적요에 부합되게 순차를 바꾸어 해결하면 될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비핵화를 빠른속도로 적극 추동하게 될것은 의심할바 없다.

우리가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속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한것은 천만만 정당한것이며 논리적으로도 합당하다.

우리의 이번 제안은 어떻게 해서나 조미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내놓은 대범하고 신의적인 중대용담의 산물이다.

우리 공화국의 위상정면이 청명한 바와 같이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막이 제거되면 6자회담자제도 뒤따라 열리게 될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으며 신의있게 행동한다.

지금 일부에서 우리 제안의 정당성과 의의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좋지 않은 소리들을 내뿜고있는데 이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실현에 찬물을 끼얹는 온당치 못한 행동이다.

정전협정당사국들이 더이상 자국의 리익부리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전쟁과 평화는 근원적문제를 손을 떨 용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되어나갈수 있을것이다.

## 여러 나라 인사들이 강조

주제 99 (2010)년 새해에 즈음한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여러 나라 인사들은 우리 인민이 창조와 비약의 열풍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메히코사회주의인민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2009년은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도에 조선인민이 총진군의 복소리 높이 울리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킨 해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이 온 세상에 힘있게 파시되게 하였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거둔 성과들은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조진속도로 더 높이며 더 빨리 비약할것이다. 올해에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0돐과 조국해방 65돐을 경축하게 된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은 올해에 대고 조진속도로 더 높이며 더 빨리 비약할것이다. 방글라데시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리상과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열렬히나선 조진속도의 기세를 추종한다.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있는 한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선군의 기치 높이 나가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은 오늘 혁명적대고조로 세계적인 변혁을 창조하며 자기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로씨야파라한 동방화현 구소 소장은 조선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승리는 진보적인 인류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새해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매우 뜻깊은 해이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은 선군혁명승리의 대추진으로 빛날것이다.

올해에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0돐과 조국해방 65돐을 경축하게 된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은 올해에 대고 조진속도로 더 높이며 더 빨리 비약할것이다.

방글라데시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리상과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열렬히나선 조진속도의 기세를 추종한다.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있는 한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선군의 기치 높이 나가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혁명을 이룩하는 조선인민 세기적

## 인도네시아 선봉자당 새해 공동사설을 지지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을 지지하여 5일 인도네시아 선봉자당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새해공동사설에서 경공업과 농업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동전선으로 정하였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공동사설은 전체 조선인민이 다시한번 분발하여 힘찬 투쟁을 벌임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공동사설은 또한 전체 조선인민이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들고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올해에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실현할것을 호소하였다.

우리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사리에 놓고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야말로 조선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

조선인민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도따라 올해에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

본사기자

## 경제발전에서 기본은 자재의 힘에 의거하는 것이라고 강조

차드대통령 이드리세스 데비가 최근 한 연설에서 정부의 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보건사업을 개선하며 도로와 비행장 등 하부구조건설을 다그치고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것을 정부의 주요과업으로 제시하였다.

군중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리익을 지켜주며 그들이 애국주의를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공업생산 증가 브라질에서 지난해 11월에 공업생산이 그 전해 같은 달에 비해 5.1% 증가하였다.

국내총생산성장률 목표 싱가포르에서 2010년에 국내총생산성장률이 3~5%에 달하게 할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다락밭 건설 르완다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해 다락밭건설에 힘을 쏟고있다.

나라이에서는 올해말까지 다락밭면적을 현재 19만 3 735ha로부터 100만 4 00ha로 늘일것을 계획하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다락밭조건에 맞는 작물들을 재배하기 위한 사

나 원유가격이 상승하고 온실 효과가스배출량을 줄이려는 국제적인 요구와 통계가 강화됨에 따라 세계자동차업계는 새로운 자동차개발에 현대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도이칠란트 《다이에트》 회사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새형의 소형 자동차는 최대속도가 155km/h를 초과하고 충전 시간은 3시간이내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1회충전으로 달릴수 있는 거리가 150km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전기자동차의 실용화를 적극 추동하는 이러한 기술발전실태를 놓고 사람들은 풍력 및 태양 에너지를 《에너제트》로 충전한 전기자동차들이 도로를 달리는 《리상적인 세계》가 눈앞에 막두었다고 평하고있다.

태양에너지기발전기술도 최근 가장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가장 전망성있는 전력생산기술로 인정되고있다.

태양에너지기발전에 대하여 흔히 사람들은 엄청난 광활한 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심히 잘못된 생각이다.

인류가 달성할 오늘날의 과학기술을 리용하면 이론적으로

본사기자

## 조선인민은 강성대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다

당보, 군보, 청년보 새해공동사설을 지지하여 인도네시아와 노르웨이인사가 담화를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인사대회비서 프라빈 다바르는 1일 담화에서 2009년은 조선인민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난해 조선인민이 자재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제2차 지하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것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장쾌한 첫 포성을 울린 역사적사건이었다.

새해 2010년을 맞으며

## 인디아, 노르웨이 인사의 담화

《로동신문》, 《조선인민군보》, 《청년전위》는 공동사설을 발표하여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나는 새해 2010년을 맞으며 발표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보》, 《청년전위》 공동사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올해는 조선의 통일실현에서

《청년전위》가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사실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노르웨이공산당 외스트폴드 주위원회는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올해에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며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바라면서 이 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를 확인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중국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취소를 요구

중국의외부대변인이 9일 기자회견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를 반대하는 자기 나라의 입장을 재천명하였다.

최근 미국방성이 대만에 대한 《메트리어트》 미사일판매 계획을 승인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 인디아, 노르웨이 인사의 담화

불만을 표시하며 견결히 반대하는 자세를 나타내었다.

그는 미국의 그와 같은 처사는 중국의 안전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며 무기판매에 간섭하는 행위라 한다고 단죄하였다.

대만문제는 중국의 주권, 영토안정과 판례하며 중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로 된다고 강조하고 그는 미국이 사래의 엄중성을 똑똑히 알고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즉시 취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11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 배이트 하니스의 한 주민지역에 쳐들어가 땅크로사격을 가하여 2명의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한다.

공업생산 감소 벨라리아에서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후과로 지난해 11월에 공업생산이 그 전해 같은 달에 비해 10.8% 감소되었다.

특히 제작업부문에서 생산이 크게 줄어들었다 한다.

최근 전기자동차 국제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여기에 수 십억 US\$를 투자하였다. 중국은 앞으로 3년동안에 50만대의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프랑스정부는 2012년까지 10만대의 전기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게 할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분야에서 세계 제1위의 지위를 차지할것을 목표로 하고있는 중국은 이미 여기에 수 십억 US\$를 투자하였다. 중국은 앞으로 3년동안에 50만대의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프랑스정부는 2012년까지 10만대의 전기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게 할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본사기자

## 계속되는 살인만행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11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 배이트 하니스의 한 주민지역에 쳐들어가 땅크로사격을 가하여 2명의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한다.

공업생산 감소 벨라리아에서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후과로 지난해 11월에 공업생산이 그 전해 같은 달에 비해 10.8% 감소되었다.

특히 제작업부문에서 생산이 크게 줄어들었다 한다.

최근 전기자동차 국제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여기에 수 십억 US\$를 투자하였다. 중국은 앞으로 3년동안에 50만대의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프랑스정부는 2012년까지 10만대의 전기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게 할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분야에서 세계 제1위의 지위를 차지할것을 목표로 하고있는 중국은 이미 여기에 수 십억 US\$를 투자하였다. 중국은 앞으로 3년동안에 50만대의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프랑스정부는 2012년까지 10만대의 전기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게 할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본사기자

## 경제발전에서 기본은 자재의 힘에 의거하는 것이라고 강조

차드대통령 이드리세스 데비가 최근 한 연설에서 정부의 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보건사업을 개선하며 도로와 비행장 등 하부구조건설을 다그치고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것을 정부의 주요과업으로 제시하였다.

군중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리익을 지켜주며 그들이 애국주의를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공업생산 증가 브라질에서 지난해 11월에 공업생산이 그 전해 같은 달에 비해 5.1% 증가하였다.

국내총생산성장률 목표 싱가포르에서 2010년에 국내총생산성장률이 3~5%에 달하게 할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다락밭 건설 르완다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해 다락밭건설에 힘을 쏟고있다.

나라이에서는 올해말까지 다락밭면적을 현재 19만 3 735ha로부터 100만 4 00ha로 늘일것을 계획하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다락밭조건에 맞는 작물들을 재배하기 위한 사

나 원유가격이 상승하고 온실 효과가스배출량을 줄이려는 국제적인 요구와 통계가 강화됨에 따라 세계자동차업계는 새로운 자동차개발에 현대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도이칠란트 《다이에트》 회사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새형의 소형 자동차는 최대속도가 155km/h를 초과하고 충전 시간은 3시간이내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1회충전으로 달릴수 있는 거리가 150km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전기자동차의 실용화를 적극 추동하는 이러한 기술발전실태를 놓고 사람들은 풍력 및 태양 에너지를 《에너제트》로 충전한 전기자동차들이 도로를 달리는 《리상적인 세계》가 눈앞에 막두었다고 평하고있다.

태양에너지기발전기술도 최근 가장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가장 전망성있는 전력생산기술로 인정되고있다.

태양에너지기발전에 대하여 흔히 사람들은 엄청난 광활한 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심히 잘못된 생각이다.

인류가 달성할 오늘날의 과학기술을 리용하면 이론적으로

본사기자

## 경제발전에서 기본은 자재의 힘에 의거하는 것이라고 강조

차드대통령 이드리세스 데비가 최근 한 연설에서 정부의 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보건사업을 개선하며 도로와 비행장 등 하부구조건설을 다그치고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것을 정부의 주요과업으로 제시하였다.

군중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리익을 지켜주며 그들이 애국주의를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공업생산 증가 브라질에서 지난해 11월에 공업생산이 그 전해 같은 달에 비해 5.1% 증가하였다.

국내총생산성장률 목표 싱가포르에서 2010년에 국내총생산성장률이 3~5%에 달하게 할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다락밭 건설 르완다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해 다락밭건설에 힘을 쏟고있다.

나라이에서는 올해말까지 다락밭면적을 현재 19만 3 735ha로부터 100만 4 00ha로 늘일것을 계획하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다락밭조건에 맞는 작물들을 재배하기 위한 사

나 원유가격이 상승하고 온실 효과가스배출량을 줄이려는 국제적인 요구와 통계가 강화됨에 따라 세계자동차업계는 새로운 자동차개발에 현대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도이칠란트 《다이에트》 회사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새형의 소형 자동차는 최대속도가 155km/h를 초과하고 충전 시간은 3시간이내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1회충전으로 달릴수 있는 거리가 150km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전기자동차의 실용화를 적극 추동하는 이러한 기술발전실태를 놓고 사람들은 풍력 및 태양 에너지를 《에너제트》로 충전한 전기자동차들이 도로를 달리는 《리상적인 세계》가 눈앞에 막두었다고 평하고있다.

태양에너지기발전기술도 최근 가장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가장 전망성있는 전력생산기술로 인정되고있다.

태양에너지기발전에 대하여 흔히 사람들은 엄청난 광활한 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심히 잘못된 생각이다.

인류가 달성할 오늘날의 과학기술을 리용하면 이론적으로

본사기자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공업생산 증가 브라질에서 지난해 11월에 공업생산이 그 전해 같은 달에 비해 5.1% 증가하였다.

국내총생산성장률 목표 싱가포르에서 2010년에 국내총생산성장률이 3~5%에 달하게 할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다락밭 건설 르완다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해 다락밭건설에 힘을 쏟고있다.

나라이에서는 올해말까지 다락밭면적을 현재 19만 3 735ha로부터 100만 4 00ha로 늘일것을 계획하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다락밭조건에 맞는 작물들을 재배하기 위한 사

나 원유가격이 상승하고 온실 효과가스배출량을 줄이려는 국제적인 요구와 통계가 강화됨에 따라 세계자동차업계는 새로운 자동차개발에 현대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도이칠란트 《다이에트》 회사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새형의 소형 자동차는 최대속도가 155km/h를 초과하고 충전 시간은 3시간이내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1회충전으로 달릴수 있는 거리가 150km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전기자동차의 실용화를 적극 추동하는 이러한 기술발전실태를 놓고 사람들은 풍력 및 태양 에너지를 《에너제트》로 충전한 전기자동차들이 도로를 달리는 《리상적인 세계》가 눈앞에 막두었다고 평하고있다.

태양에너지기발전기술도 최근 가장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가장 전망성있는 전력생산기술로 인정되고있다.

태양에너지기발전에 대하여 흔히 사람들은 엄청난 광활한 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심히 잘못된 생각이다.

인류가 달성할 오늘날의 과학기술을 리용하면 이론적으로

본사기자

## 해적행위 성행

세계적으로 해적행위가 성행하여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14일 국제해양부로서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에 세계 대양과 바다들에서 간행된 해적행위가 총 406건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39% 증대된것으로서 지난 6년동안의 최고기록으로 된다 한다.

각종 재해로 손실 물품에서 지난해에 산불, 큰물, 폭풍 등 2 460건의 각종 재해가 발생하였다.

재해로 2 48명 목숨을 잃고 990명의 살림집이 파괴되었으며 6 71만 US\$치의 경제적인 손실이 초래되었다 한다.

14일 이 나라 국가통계위원회가 이에 대해 밝혔다.

본사기자

## 단편 오만성의 극치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센다는 말이 있다. 미국식오만성이 체질화된 백제인에게 맞는 격언이다.

백제인으로 말